



박승희 상임지휘자가 25일 취임연주회 '평화를 향한 역동과 진혼'을 앞두고 리허설 무대에서 지휘하고 있다.

광주 희생영령 기리는 '국악 레퀴엠'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박승희 상임지휘자 취임연주회

25일 '평화를 향한 역동과 진혼'

"남도민속이라는 브랜드에 부합하는 광주의 비전은 무엇일까 오랫동안 고민해왔습니다. 지난 30여 년간 광주는 남도민속 브랜드를 토대로 나름 역할을 잘 수행해 왔지만, 앞으로의 30년을 열어가기 위해서는 광주만의 진취적인 비전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 중 하나는 이번 연주회의 주제처럼 '평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광주시민들의 과거의 상처를 보듬어줄 수 있는 음악을 구현하는데 초점을 두고 국악관현악단을 이끌어 갈 계획입니다."

신임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박승희 상임지휘자의 취임연주회를 앞두고 기자 간담회가 6일 오전 광주예술의전당 연습실에서 열렸다. 취임연주회 '평화를 향한 역동과 진혼'은 오는 25일 오후 7시 30분 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간담회에는 운영진 예술의전당장을 비롯해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박승희 상임지휘자, 무대디자인을 맡은 최진규 예술감독, 예술의전당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박승희 지휘자는 "10여 년 전부터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의 연주회를 관심있게 지켜봐왔다"며

"언젠가 고향 광주에 돌아와 단원들과 함께 한다면 어떤 작품을 통해 음악적으로 기여할까, 라는 생각을 했었다"고 말했다.

광주예술고등학교와 서울대 국악학과(피리전공)를 졸업한 박 지휘자는 그동안 공주시 충남연정국악단 예술감독, 국립국악원 정악연주단, 창작악단 단원 및 수석단원 등을 거쳤다. 국가무형문화재 제1호 중요무형문화재, 제46호 피리정악 및 대취타 이수자이며, 현재는 대한민국 국·공립국악지휘자협회 회장을 맡고 있다.

취임연주회 '평화를 향한 역동과 진혼'은 총 6개 섹션으로 이루어져 있다. 관현악합주곡 '꿈의 아리랑', 첼로 연주가 돋보이는 '희문'과 백제 이야기를 녹인 '역동의 강', 민요를 재해석한 '아리랑 랩소디', 해금의 격정을 담은 '추상' 등 다양한 레퍼토리로 구성됐다.

그 중 백미는 단연 마지막 무대 '진혼'. 죽은 자의 넋을 위로하는 진도씻김굿, 가톨릭 미사의 합창 외에도 전통 악기까지 아우르며 대규모로 기획됐다. 160여 명의 합창단원이 무대에 올라 광주의 민주·평화정신을 기리고 희생영령을 추모하는 일종의 '국악 레퀴엠'으로 펼쳐질 예정이다.

이번 무대는 벨칸토 창법, 동방의 씻김굿, 서구의 레퀴엠, 미디어 시각작업 등을 다채롭게 연결해 관객들에게 주제의식을 전달하는 방식을 취할 예정이다. 취임연주회에서 이러한 구성이 '민주와 평화' 정신을 조화롭게 잘 담아낼 지 관심이

끈다. 박 지휘자는 "딛션에도 주제의식을 담을 수 있겠지만 이번에는 멜로디 자체에 민주평화정신을 응축하고자 했다"며 "공연의 마지막 부분에서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나리'라는 가사를 한국어로 전달하는데 이는 민주평화 정신이라는 공연의 의도에 포커스를 맞춘 것이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아름답게 노래한다"는 의미의 벨칸토도 시대마다 여러 의미를 담는다"며 "장엄한 진혼곡에 광주의 평화정신이 잘 녹아들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준비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간담회를 마친 뒤 취임연주회 '평화를 향한 역동과 진혼'을 위한 리허설도 이어졌다. 박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 펼쳐진 '진혼'의 연주는 연습하면서 서도 잔잔한 감동을 자아냈다. 국악관현악단의 목관, 금관악기 등에 담긴 섬세한 크레센도는 곡의 분위기를 웅장하게 만들었다. 특히 지휘자가 직접 합창단을 대신해 노래하는 장면은 본 공연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했다.

한편 운영진 전담장은 "이번 연주회는 지난 4월 17일 선임된 박승희 지휘자의 취임 후 첫 무대. 수준 높은 무대가 기대되는 만큼 앞으로 시민들이 좋아하는 공연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전담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8세 이상 관람가. 예술의전당 홈페이지 또는 티켓링크에서 예매할 수 있다.

/글·사진·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광주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워크숍 '아이 엠 씬'

11일까지 희망자 선착순 모집

문화예술교육과 지역문화를 모티브로 교과과정에 적용 가능한 예술적 탐색을 시도해보는 워크숍이 열린다.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황풍년)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오는 8월 1일~3일까지 문화예술교육 워크숍 '아이 엠 씬'을 진행한다. 모집인원은 선착순 30명이며 11일까지 모집한다. 워크숍은 전통문화관에서 지역 내 초·중·고등교원 및 교육 전문직원을 대상으로 펼쳐질 예정이다.

먼저 1일은 '학교교육과 예술을 엮는 예술적 탐색'을 주제로 흥천 남산초 한승모 교사가 '목소리

로 만나는 음악'을 제목으로 통합문화예술교육 활동 경험을 공유한다.

둘째 날 2일 오전은 '지역문화예술로 실험하기'를 주제로 옛 장흥교도소 문화재생산업단 김영현단장이 마을과 문화예술교육, 교과과정의 연계를 발표하며 오후에는 전통연희놀이 정재일 대표, 오색빛협동조합 김은희대표의 '전통의 재로 문화예술교육 체험하기'가 펼쳐진다.

마지막 날은 '일상의 재료로 문화예술교육 실험하기'를 주제로 고부신학교 조재경 대표가 일상의 다양한 오브제를 활용한 창작활동을, 문화예술치

유단체 세라비가 '손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주제로 자기치유의 시간과 문화예술교육과 교과과정의 통합 과정을 소개할 예정이다.

희망자는 광주광역시교육연수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수강신청하면 된다.

광주문화재단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은 지역의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교육을 토대로 교과과정에 적용 가능한 결과물을 도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며 "교육 현장의 창의예술교육 확산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오늘거리는 대사 감정없이 담백하게"

배우 강민혁

넷플릭스 드라마 '셀러브리티'서 '프린세스 메이커' 재벌 한준경 역

"처음에는 스스로를 '프린세스 메이커'라고 말하는 대사를 어떻게 할지 고민했어요. 그런데 한준경이란 인물은 어떤 말에도 영혼 없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도 충분히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셀러브리티'에서 배우 강민혁(그를 씨앤티블루)이 연기한 한준경은 "프린세스 메이커, 그게 내 별칭"이라고 말한다.

재벌가 자제이자 대형 화장품 브랜드 대표 한준경은 "가끔 계급 차이가 나는 여자들을 만나서 그렇게 말하는 것 같다"며 이렇게 말해 여주인공 서아리(박규영 분)를 당황하게 한다.

강민혁은 5일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진행된 인터뷰를 통해 "이 대사를 어떻게 할지 감독님, 작가님과 여러 이야기가 나눴다"고 털어놨다. 이어 "준경이라는 인물을 이해할수록 이런 말을 충분히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준경이라면서 이 말을 '밥을 먹는다'는 말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생각하고 연기하다 보니 생각만큼 옅게 걸리지 않게 결과물이 나온 것 같다"고 자평했다.

'셀러브리티'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팔로워 숫자가 돈과 권력이 되는 인터넷 유명인들의 치열한 경쟁과 다툼을 다룬 드라마다. 평범하던 서아리가 우연한 계기로 유명인이 되고 몰락하는 과정을 그린다.

극중 강민혁이 연기한 한준경은 재벌로서 다소 특권적에 사로잡혀 있으면서도 잘못된 일에는 눈감지 않는 인물로 그려진다. 한준경은 서아리가 유명인이자 재벌 앞에서도 주눅이 들지 않고 할 말을 하는 당당한 모습에 매력을 느껴 도움을 손길을 내민다.

강민혁은 실제 338만 명이 넘는 인스타그램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SNS 스타들의 일상에는 거의 아는 바가 없었다고 한다. 그는 "한 번도 팔로워들에게 뭔가를 홍보하거나 판매하려고 생각한

일이 없어서 드라마 속 이야기가 신기하게 느껴졌다"고 말했다.

한준경이 어떤 인물인지 표현하는 드라마 속 장면으로 대표적인 것이 구두를 벗는 모습이다. 귀가한 한준경이 무심하게 현관 안으로 걸어가자 대기하던 가정부가 허리를 숙여 구두 뒤꿈치 부분을 잡아 벗겨주는 극진한 대우를 나타내는 장면이다.

강민혁은 "그 장면을 촬영하느라 정말 많이 연습했다"며 "준경에게는 밥을 먹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인 만큼 최대한 어색하지 않게 보여야 하므로 여러 번 리허설했다"고 설명했다.

강민혁은 또 "그 장면 자체만 놓고 보면 자극적이라고 느낄 수 있지만, 그 뒤에 준경이 '내가 이걸 하지 말라고 하면 저 분은 직업을 잃게 된다'고 설명한다"며 "앞뒤 대사를 보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를 씨앤티블루의 드라마이기도 한 강민혁은 2010년 SBS 드라마 '괜찮아, 아빠딸'을 시작으로 10여 년의 시간 동안 여러 편의 드라마에 출연했지만, 여전히 꼼꼼하게 맡은 배역을 공부한다.

이번 드라마를 준비하면서 강민혁은 수시로 김철규 감독을 만나 연기 방향과 인물의 성격 등을 의논했다고 한다. 일부 언론에서 '강민혁이 김철규 감독에게 혼나면서 연기를 연습했다'고 보도할 정도였다.

강민혁은 "확실하게 캐릭터를 잡고 가지는 취지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맞춘 것은 맞지만, 감독님께 혼난 것은 아니다"라며 웃어 보였다.

그는 직접 작품인 2021년 MBC 드라마 '오! 주남'에 이어 연속으로 재벌가이자 대형 화장품 업체 대표를 연기한 데 대해서는 "배우가 다양한 역할을 연기하는 것만큼 큰 축복이 없을 것"이라며 다양한 역할에 욕심을 드러냈다.

"재미있는 이야기, 좋은 감독님, 좋은 배우와 함께할 수 있다면 어떤 작품이든 하고 싶어요. 이번 드라마에서 했듯이 최선을 다해서 모든 걸 끌어내 보여주고 싶다는 욕심이 있습니다." /연합뉴스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DK 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

벽걸이공기청정기 (36평)
DAP-2299****

mini air(DAP-0403****)
공기청정기 + 블루투스 스피커

0420 공기청정기 (13평)
DAP-0420ANWG

S9 공기청정기 (16평)
DAP-2216NAWH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